

# 내 삶, 내 목숨이 불완전 연소되지 않게



박정수 원불교 교무

바람도 없이 차가운 겨울날. 용인 현산중학교 안에 있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으로 온 누리를 보듬어 아우르는 우리 시대 어머니, 원불교 박정수 교무(75)를 찾았다.

"1989년 제 첫 책 박정수 세계기행 <기다렸던 사람들>을 법정 스님께 보내드렸는데, 스님께서 앉아서 세계 구경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며 엽서를 보내 주셨어요." 그렇게 몇 차례 서신이 오간 뒤 박정수 교무는 불일암에 가고 싶다고 청했다. "...매화가지에 꽃망울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댓잎이 부서지는 봄 햇살이 향기롭습니다. 꽃가지에 향기가 번질 때쯤 다녀가십시오."하는 화답에 박정수 교무는 꽃가지에 향기가 번지는 시절인연을 꼭 맞춘 1991년 3월 20일, 불일암을 찾았다. "그때 법정 스님은 앞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이 내 얼굴이고 내 모습이니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저 묵묵히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면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공양을 먼저 와 있던 젊은이들과 함께 했는데 스님은 '여럿이 먹으니가 참 맛있다. 혼자서 하는 식사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거나 다름없어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홀로 앉아 드시는 식탁을 떠올렸어요." 20년이나 된 이야기를 마치 엿그제 일 마냥 생생히 털어놓은 박정수 교무는 소

녀처럼 눈빛이 반짝인다.

"화장실을 정량淨齋이라고 하나요? 정량엘 들어가 보니까 낙엽통이 있고 부삽과 비가 있었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쓰여 있어서 신을 벗고 거기 있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느 집 대청마루보다 더 깨끗해요. 정량 안에 앉으니 앞에 들성들성 창살이 박힌 창이 나있는데 창밖에 대밭이 훤히 보이고 대숲에 이는 바람소리가 일품이었어요. 벽에는 '불일을 마치면 배설물을 낙엽으로 덮을

### 국경·인종·종교를 뛰어넘어 무지·빈곤·질병 퇴치에 헌신

시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제야 왜 낙엽이 있고 비가 있는 까닭을 알아차렸지요. 정량을 나오다 보니 '나을 때 문결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말 잘 듣는 학생마냥 고분고분 소리 없는 지시에 따랐어요. 스님은 그곳이 기도처라면서 불일을 보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어떤 잡념도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우물 또한 마치 막 싹삭 쓸고 닦은 듯한 바위에

물이 고여 있는데 '식수에 물 튀기지 않도록'이라 쓰여 있어 물 한 모금을 마시기도 조심스러웠다. 세수간엔 들어가도 물통, 대야, 빨래판, 비누 그리고 신고 들어가는 슬리퍼도 모두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식당채 뒤뜰로 돌아가면 자그마한 향아리들이 나란히 문혀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박정수 교무가 살며시 푸경을 열어보니 빨간 글씨로 '열어보지 마시오'라고 쓰고 그 아래 검정 글씨로 '91년 여름에 먹을 잔주지'라고 쓴 비닐봉지로 봉해져 있었다. 얼른 푸경을 닫았지만 다른 향아리 속 내용이 궁금해져서 열어보고 말았다. 거기 역시 '열어보지 마시오. 91년 여름에 먹을 배추김치'라고 쓰여 있었다. 나그네 버릇들이 서로 비슷하기에 써놓았으리라. 친절이다. 모든 사물이나 사람이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듯이, 스님은 모든 사물이 제대로 대접 받기를 바라셨다. 그 모습 그대로 개체에서 전체로 나아가 스님 삶이자 수행이었으리라.

"법정 스님께 가장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일을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편지를 보냈지요." 인도 히말라야 설산 라다크를 돕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안타까웠다. 궁리 끝에 법정 스님을 떠올렸다. 인도를 다녀와서 인도기행을 쓰신 스님은 형편을 잘 헤아리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를 마치 통신문 리포터처럼 써서 보냈다. "자녀들을 가르칠 학교가 없어서 1만리가 떨어진 남인도 벵골로 대어섯 살 때 보내서 집에 한번 오려면 24시간을 기차를 타고 이틀을 버스를 타고 와서도 또 걸어서 와야 하니까, 애를 학교를 보내고 나면 십년 만에 부모자식이 만나야 해요. 아무래도 학교를 세워야 할까 봐요." 편지를 받고 바로 스님이 오셔서 나도 거들어야겠다며 100만원을 놓고 가셨다. "스님은 늘 '제가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 세상소리에 귀 기울이는 千手와 天眼 관세음보살

마음 든든하지요?" 하셨어요. 제가 라다크에 학교를 짓고 나서 힘을 다 빠져가지고, '스님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큰일 했어요. 큰일!'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뭘 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 내면이 바닷가 갯벌 같아졌어요.' 그랬더니 법정 스님은 '아휴, 그래야 돼요. 안일을 하고 나서도 힘이 남아서 정정하면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일도 공이 되지 않지요. 힘든 일을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야 정상이에요'라면서 격려해 주곤 했어요"하며 마치 방금 스님 말씀을 듣고 힘을 차리고 난 사람처럼 "법정 스님이 보내주신 엽서를 보면 '구름도 바라보세요. 별도 헤아리고요. 장거리 선수는 한꺼번에 기운을 쏟아내지 않는대요.' 뭐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달하고 숨바꼭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날마다 달을 쳐음 보면 '어머! 달님' 그러니까. 나한테는 달님이 아주 친한 동무예요." 보름달로 나타나는가 하면 채워지기 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요렇게 조금 낡는 때가 있고 낫달도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달을 보면 어머니 소식을 달이 다 아는 것 같으면서 해맑게 웃는 박 교무, 타고난 소녀다.

교무가 되고 50여 년을 씀 없이 달려온 박정수 교무. 국경이나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무지와 빈곤, 질병을 없애는데 한평생을 바친 '사랑' 그 자체로, 지구를 아우르고 보듬은 손이 큰 어머니다. 55개 나라를 도우며 세운 학교만도 나라 안팎에 모두 9개. 그밖에 인도 라다크에 카루나 자비병원설립을 후원하고, 그리고 바탐방 무료구제병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지뢰를 캐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 아랍해 호수물이 마르고 강물이 흐르지 않아 더는 농사지으며 살 수 없는 누크스지역 고려인들을 남부 러시아 불가강가 불고그라드로 옮겨 살게 하는 일도 큰 일이었어요. 중국 홍콩 조선족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학교를 세우게 한 일이나, 100년 만에 다친 큰 물피해를 입은 북한동포를 도울 때는 후회 없이 있는 힘을 다 쏟았어요. 아프리카 12개 나라에 의약품을 보내 산 목숨 구하는 일에 힘쓰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화산폭발, 태풍 피해 같은 자연 재해가 생길 때도 구호품을 어서 빨리 보내야 하는 제 일감이었어요. 21세기 불행한 전염병 이라크에도 의약품을 보냈어요."

南無千手千眼  
觀世音菩薩!  
교무님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千手와 天眼으로 듣고 거드는 관세음보살이세요.  
'숙제'를 읽으면서 善哉 善哉! 라고 찬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꽃소식이 들립니다. 향기로운 봄맞으십시오. 法頂 합장 96. 3. 30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아니에요.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내 삶이, 내 목숨이 불완전 연소되지 않게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출가는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어머니가 '너는 시집까지 말고 너를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하라. 네가 교무만 된다면 대학까지 가르칠 테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 별명인 대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대학 같 사람 손들어보라고 했을 때 나 혼자만 손을 번쩍 들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지요."

"그동안 어려운데다 쓴 돈만 105억 원이에요. 그게 지모용지도 없고 후원회도 없이 그저 제 말만 듣고 그냥 한 푼 두 푼 내놓으신 거예요. '모든 분들은 박정수 교무에게 돈을 주면 사무실에 쓰지도 않고 월급 나가는 사람도 없으니 한 푼도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제자리 찾아간다'고 여겼어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나를 비롯한 우리 부교무들은 다 10만원씩만 쓰고 살았어요. 어린 교무들은 그 돈에서도 2만원을 도로 내놨어요. 2만원이면 크레디에서 학생 하나가 먹고 차고 등록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 도저

## 몸과 마음은 하나!

용맹정진 기도수행에 건강 소홀하지 않으셨나요?

**웰보녹용기력대보**는 러시아산 녹용과 녹각, 영지, 당귀, 천궁, 오가피, 작약등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정성으로 다린 제품입니다.

구입문의 : 02) 934-0160 / 010-4750-5899  
입금구좌 : 농협 507046-56-051371 (임창현)

### 웰보녹용기력대보



■ 내용량 : 80ml X 60(액상)  
단식이나 절식등에 효소와 함께드시면 공복감도없고 기력도 떨어지지 않아 선식대용으로도 매우 좋으며 단식후 보식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제조 : 웰보H&F 제품허가번호 : 서울중량164호 / 농장 : 충남 태안군 태안을 삭선리42-1번지

### 천미효소



■ 내용량 : 3.5g X 90(과립)  
몸에 효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습니다.
-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집먼저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궁예양초



① 밀납 아랑 연꽃 양초 7.0 f X 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 f X 18cm  
③ 밀납 2호 그림 양초 5.9 f X 18cm  
④ 약복 아랑 연꽃 양초 7.0 f X 33cm  
⑤ 밀납 PC양초 5.5 f X 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 f X 18cm

#### 한밀납 양초



① 밀납초 90cm X 90cm  
② 밀납초 1호 4.7 f X 25cm  
③ 밀납초 2호 4.7 f X 13cm  
④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⑤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⑥ 밀납초 5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⑦ 밀납초 6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⑧ 밀납초 7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⑨ 밀납초 8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⑩ 밀납초 9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⑪ 밀납초 10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⑫ 밀납초 11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⑬ 밀납초 12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⑭ 밀납초 13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⑮ 밀납초 14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⑯ 밀납초 15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⑰ 밀납초 1호 7.0 f X 34cm  
⑱ 밀납초 2호 5.9 f X 18cm  
⑲ 밀납초 3호 5.9 f X 18cm  
⑳ 밀납초 4호 5.9 f X 18cm  
㉑ 밀납초 5호 5.9 f X 18cm  
㉒ 밀납초 6호 5.9 f X 18cm  
㉓ 밀납초 7호 5.9 f X 18cm  
㉔ 밀납초 8호 5.9 f X 18cm  
㉕ 밀납초 9호 5.9 f X 18cm  
㉖ 밀납초 10호 5.9 f X 18cm  
㉗ 밀납초 11호 5.9 f X 18cm  
㉘ 밀납초 12호 5.9 f X 18cm  
㉙ 밀납초 13호 5.9 f X 18cm  
㉚ 밀납초 14호 5.9 f X 18cm  
㉛ 밀납초 15호 5.9 f X 18cm  
㉜ 밀납초 1호 5.6 f X 27cm  
㉝ 밀납초 2호 5.9 f X 14cm  
㉞ 밀납초 3호 4.7 f X 10cm  
㉟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㊱ 밀납초 5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㊲ 밀납초 6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㊳ 밀납초 7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㊴ 밀납초 8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㊵ 밀납초 9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㊶ 밀납초 10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㊷ 밀납초 11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㊸ 밀납초 12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㊹ 밀납초 13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㊺ 밀납초 14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㊻ 밀납초 15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㊼ 밀납초 1호 5.6 f X 27cm  
㊽ 밀납초 2호 5.9 f X 14cm  
㊾ 밀납초 3호 4.7 f X 10cm  
㊿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f X 10cm  
① 밀납초 90cm X 90cm  
② 밀납초 연봉 완가동 7.0 f X 34cm  
③ 밀납초 돈타래 5.6 f X 27cm  
④ 밀납초 1호 4.7 f X 25cm  
⑤ 밀납초 2호 4.7 f X 13cm  
⑥ 밀납초 3호 4.7 f X 13cm  
⑦ 밀납초 4호 4.7 f X 13cm  
⑧ 밀납초 5호 4.7 f X 13cm  
⑨ 밀납초 6호 4.7 f X 13cm  
⑩ 밀납초 7호 4.7 f X 13cm  
⑪ 밀납초 8호 4.7 f X 13cm  
⑫ 밀납초 9호 4.7 f X 13cm  
⑬ 밀납초 10호 4.7 f X 13cm  
⑭ 밀납초 11호 4.7 f X 13cm  
⑮ 밀납초 12호 4.7 f X 13cm  
⑯ 밀납초 13호 4.7 f X 13cm  
⑰ 밀납초 14호 4.7 f X 13cm  
⑱ 밀납초 15호 4.7 f X 13cm  
⑲ 밀납초 1호 5.6 f X 27cm  
⑳ 밀납초 2호 5.9 f X 14cm  
㉑ 밀납초 3호 4.7 f X 10cm  
㉒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㉓ 밀납초 5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㉔ 밀납초 6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㉕ 밀납초 7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㉖ 밀납초 8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㉗ 밀납초 9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㉘ 밀납초 10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㉙ 밀납초 11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㉚ 밀납초 12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㉛ 밀납초 13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㉜ 밀납초 14호 반야심경 4.7 f X 10cm  
㉝ 밀납초 15호 반야심경 4.7 f X 10cm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히 8만원 가지고는 못살겠다고 해서 15만원 줬죠. 요즘도 저는 총부에서 23만원 받아요. 차가 없으니 까 주로 버스를 타고 다녀요. 혼자 끓여먹는데 23만원도 다 들지 않아요. 내가 뭐 화장을 하나 미장원엘 가나, 어디 돈 쓸 일이 있나요? 이런 옷도 다 30년 40년씩 입던 거예요. 여름치마 스물여섯에 입었는데 그때는 속이 좀 비쳐서 잘 입지 않다가 나이 드니까 더 좋은 거야. 가벼워서.” 법정 스님 말씀처럼 맑은 가난이다.

박청수 교무 사랑실천은 자그마한 나눔에서 비롯되었다. 한국보육원 고아 128명에게 털모자와 타이즈를 사주는 일을 비롯해 미혼모와 아이 돌보기를 했고, 시각장애인과 인연을 맺어 소리잡지를 만들며 점자책을 만들도록 도왔다. “이 세상 이치가 작은 게 쌓이고 쌓여 커지고, 커지면 드러나죠. 뭐든지 작게 단소 소박하지만 뜻있는 일을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1975년부터 31년 동안 다른 종교인 천주교 시설인 성 라자로 마을 나환자 돕기를 해왔다. 더구나 다른 이들이 마련해 주는 돈만 기다리지 않고, 15년 동안 엿을 떼어다 팔아 그 이익금을 보냈다. 이 말씀을 들으

화합을 위해서 다른 종교 가르침이나

교의에도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라

며 펄프 마중물을 떠올렸다. 물을 붓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이치. 그동안 이 어른이 꾸준히 해온 일은 마중물 노릇이었구나 싶었다. 그뿐인가. 맑고 향기롭게 운동에도 동참하고, 파리 길상사 건립과 성북동 길상사 창건 때와 길상사 지장전을 세우는 불사에도 많은 힘을 보냈다. 기원전 2세기 불교 중흥에 앞장섰던 걸출한 영웅 인도 아소카 Asoka 대왕 포고문이 떠오르는 나눔이다. “누구도 자신이 믿는 종교만 받들고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다른 종교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화합을 위해서 다른 종교 가르침이나 교의에도 가까이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라.”

“언젠가 성지고등학교 가서 강연을 할 때 학교에서 처음에 많이 격정을 했대요. 애들이 다 제멋대로 나가버리곤 해서, 제 소개를 할 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싫어하는데 오늘은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딱한 소녀였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었던단다.’ 6·25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학교 다니기 어려웠던 일, 배고팠던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등상 한번 못타봤다. 그런데 출가를 하고 스물두 살 때 교도들이 요즘은 교당에 와도 교무님 설교 내용이 들을 것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교무가 되려면 반드시 실력을 쌓아야겠구나 싶었어. 목적이 생기고 자각이 드러나 대학 가서는 계속 수석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이 나고 하기 나름이더라. 나는 지금은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도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열심히 듣더라고요.” 21세기 화두가 소통인데 공감을 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 대가다.

“55년 동안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얻어진 고요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만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법정 스님이 아니었다면 사친쟁이는 교무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갔을 것이다. 스님은 입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무님을 통해 내게 '나눔'의 가르침을 주셨다.

요. 내 몸이 대적관이지. 내 마음에는 먼지가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빈 마음으로 사니까 삼라만상이 다 보이잖아요. 누가 불편한가? 제가 못 견뎌요. 남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부처님이 이루신 육신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번뇌를 여의어 고요하고, 세상 신음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고, 세상 아픔이 다 보이고, 불편이 있는 곳이면 세상 어디라도 달려가고, 못 사람들 마음을 읽고, 지금 겪는 어려움을 서로서도 손을 맞잡아 앞날을 열어 운명을 바꾸는 보살도를 이루는 이 어른은 그냥 그대로 ‘진절’이다.

원불교도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씀은 뭘까? “사람들이 가진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시간이 소중한데, 저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일평생 시간을 잘못 쓴 일이 없어요.” 큰 어른들은 어쩌면 이리 한결같은가. 법정 스님이 ‘시간은 목숨이다’고 하셨다. “그리고 시시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요. 시시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시

시한 생각을 하면 시시한 사람인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시한 생각을 할 틈이 있겠어요? 성공은 거저 오지 않아요. 잘 가꾼 벼를 거둬들이는 농부는 부지런히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알곡을 거둬들이죠.” 참된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삶이 참되어 진다는 말씀이다.

밤낮 없이 너른 세상을 휘젓고 달리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가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마치고 테이프가 가슴에 탁 닫는 것 같으면서 행복해 하는 사람. 그러나 여전히 청수나눔실천회를 비롯해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 이끄는 영원한 현역 박청수 교무.

나무청수관음보살 마하살南無淸秀觀音菩薩 摩訶薩!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방하착!



휘영청 달 밝은 밤에 길을 걷다보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비단 이룬 달밤이 아니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지기 마련이다.

한 행인이 어찌하면 한결같이 따라 붙는 그림자를 떨쳐버릴까 궁리한 끝에 걷다가 뛰어 보았다. 그런데 뛰는 속도만큼 그림자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 속도를 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이제 숨을 돌리고 앉아 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나지막한 그림자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행인은 또 다른 묘책을 내어, 이제는 누워 보았다. 신기할 만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 붙던 그림자는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낮춘다는 것이 소중하고, 놓는다는 것이 모두 잃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오가정종찬(五家正宗贊)》 ‘조주장(趙州章)’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하루는 엄양(嚴陽)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한 물건도 갖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선사는 “방하착(放下著)”이라고 답

기 어려운 일이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다면 조주 선사의 “놓아라”라는 가르침을 가슴에 담을 만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 관념이나 선입관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부하에서 벗어나면 육신도 마음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된다.

완성이란 일정한 수나 용량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Sky is blue”라는 문장이 되려면 8종류의 알파벳이 필요하다. 이 8종류의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늘이 푸르다”는 말이 될 수 없다. 수와 용량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무한한 말을 만들 수 있다.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blue’ 대신 많은 낱말을 대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에게도 성공하기 위한 성공조건이 있다. 우선 필요조건이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그린 적이 없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충분조건인데 작품이 아름답고 놀라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달룡 르동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한 눈을 가진 거인’은

선입관이 사안 해결의 큰 장애

벗어나고 놓으면 심신 자유 얻어

했다. 엄양 스님은 남들이 가지 않아서 재차 “이미 한 물건도 갖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으라는 말이오”라고 반문했다. 조주 선사는 “그림 가지고 가게”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엄양 스님은 대오(大悟)했다.

‘방하’란 손을 댄다거나 놓아 버린다는 의미이다. ‘착’은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방하착’이란 상대적인 관념을 미련 없이 저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버렸다는 관념도 버리는 것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의사는 흉부 X선 사진 관독을 통해 결핵의 조짐을 의심할 만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 X선 사진을 볼때 비추면서 보는 것은 가슴영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수련의 시절 마음속에 미리 익혀둔 이론이 아닐까? 사전에 익힌 이론에 부하(負擔)가 걸려 있지 않을까. 법정의 재판관도 범죄의 사실 심리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학도로서 예전에 익힌 관례의 유형들이 머리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 틀에 맞추어 판단하는 경우도 배제하

이 필요조건 충족을 느끼게 한다. 최초의 모더니즘 회화인 마네의 ‘폴밭 위의 식사’는 아름답고 온화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된다. 하나 부연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미술사적 용어로서 모더니즘은 인상주의의 태동 전후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1970년 대 초까지 지속된 미술 양식과 이념을 설명할 때 쓰인다.

부처님께서 정진할 때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마왕이다. 이 마왕에게는 세 딸이 있다. 갈애와 집착과 번뇌다. 물론 의인화해서 딸이라고 했다. 갈애·집착·번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속성이 있다. 이 녀석은 안팎노자도 없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 언제나 무인승차뿐이다. 수행자는 철저한 승무원이 되어 그림자를 색출해야 한다. 나를 수시로 엄습해 오는 집착이고 번뇌이기 때문이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자는 불품없는 대바라기가 되지 않고 대 자유인이 되지 않을까.

준령을 넘는 구름은 무겁다 생각하면 감량을 한다. 그리고 나면 먹구름은 흰구름이 되어 창공을 아름답게 수놓지 않던가.

동국대 석학과 교수

**불조정맥 中英韓 3개국어판**  
**화두 中英韓 3개국어판**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3개국어판 < 불조정맥 >**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계(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3개국어판 < 화두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3개국어판으로 재출간되어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 발간 예정

도서출판 바로보인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볍고 설치 용이

원터치 고리용, (인등) 소원성취 및 시라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 (정품)**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조종 및 조종 결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